

# 청정 갯벌 놀이터, 서산 종리어촌체험마을

정봉희 \_ 충남연구원 홍보팀장





충남 서산에서도 바닷가 한 켠에 붙어있는 지곡면 중왕리에 중리어촌체험마을이 있다. 세계 5대 청정 갯벌 중 하나인 가로림만에 자리잡은 이 마을은 갯벌과 낚시, 양식, 감태 등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한다.

필자는 최근 어촌봉사활동을 위해 찾은 이 마을을 둘러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고나 할까? 마을주민들이 모두 행복해하는 모습, 그리고 체험객에 대한 무한 서비스정신 때문이었다. 스스로 기뻐서 일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웃음이기에 더욱 재미있게 지내다 온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곳 중리어촌체험마을은 ‘중왕마을’이라고도 불리는데, 조선시대에 왕산리와 중촌리로 나뉘어져 있다가 1895년 중촌리가 중리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두 지역이 통합되면서 맨 앞 글자를 따 중왕리가 되었다.



〈중왕마을 박현규 위원장〉

지금은 140가구 170여명의 마을 주민이 살고 있는데, 체험사업 참여는 총57가구라고 한다. 필자가 찾아간 날도 마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들이 나와 봉사활동 재비를 도와주었다. 특히 박현규 위원장(48세)은 특유의 화통한 웃음과 친화력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함께 웃게 만들어주었다.

박 위원장은 “이 마을에서 태어나 계속 살았는데 가두리 양식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중 2012년 어촌계장을 맡으면서 양식 사업도 접고 마을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의 특기가 낚시(?)여서 그런지 마을 사업 시작하기 전, 대구에서 낚시 손님으로 온 묘령의 여인에게 한눈에 반했고, 지금은 평생 동반자가 되어 함께 마을을 꾸려가고 있다고 한다.

앞서 말했듯이 중왕마을은 바지락, 굴, 낙지, 감태 등이 주요 자원이다. 봄에는 도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왕산까지 이어지는 벚꽃길이 장관을 이루고 바지락이 가장 통통하게 살이 올라 맛이 가장 좋다. 여름에는 초록색 벼들이 춤추는 평야 사이사이에 색색의 집들이 예쁜 늘봄평야를 바라보고 바다 개울에서 쪽대 그물체험을 하며 여름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가을은 남녀노소 모두 살찌는(?) 계절! 수산물도 살이 오동통 올라 맛이 좋다. 특



히 가두리 낚시터에서 우럭, 노래미, 광어 등을 잡으며 손맛을 느낄 수 있고, 낙지가 최고의 맛을 보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겨울엔 청정 갯벌에서만 자라는 감태가 넓은 갯벌을 뒤덮은 장관을 볼 수 있다.



한 가지 이 마을의 재미를 더하기 위한 팁을 드리자면, 낙지 명인이 장사하는 식당을 꼭 찾아가 보라는 거다. 낙지탕, 낙지볶음, 탕탕이 등 세 가지 메뉴밖에 없지만 이 가게를 찾는 발길은 끊임이 없다고 한다. 낙지탕을 먹고 칼국수를 추가해서 먹는 것도 좋지만, 낙지볶음을 먹은 후 밥을 볶아먹거나, 감태로 싸먹을 때의 맛이 아주 일품이란다. 물론 필자는 봉사활동 때문에 가보질 못해 아쉬웠지만 다음 방문할 때에는 제1코스로 들러볼 참이다.

아무래도 이 마을의 주요 체험 프로그램은 갯벌을 이용한 바지락 캐기와 쪽대 그물 체험이라 할 수 있다. 김은선 사무장은 “제 기억으론 물에 들어가기에 추운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모두 바지락을 캐고 있을 때 한 학생은 오로지 낙지만을 잡겠다고 갯벌을 헤집고 다니다가 결국 ‘심봤다’를 외쳤던 그림이 생각난다”고 웃으며 말했다.





〈바지락 캐기 봉사활동 및 체험〉

그러면서 필자가 ‘체험객들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몇 점일까’를 물어보니 ‘8점’이라고 김 사무장은 대답했다. 도시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갯벌에서 조개를 잡는 것도 신기해하고, 몸은 좀 힘들지만 직접 잡은 바지락을 가져다 요리해먹을 수 있다는 뿌듯함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갯벌 생태계를 위해 무작정 많이 잡을 수 없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거나, 마을 주변의 편의시설들이 부족하다는 점을 아쉬움으로 들며 2점을 뺐다고 한다.



2점의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은 지난해 체험객수가 4천명을 넘었고, 체험과 특산물 판매 등으로 2억 4천만이 넘는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올해는 8천명 이상의 체험객과 함께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 모두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운영을 하다 보니 사소한 안전 하나에도 의견 차이가 생기기 일수다. 박 위원장은 “우리는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회의를 많이 한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보다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올 10월이면 3년차 낙지 축제를 개최하게 되고, 봄에는 벚꽃 행사와 문화 행사를,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초복·중복·말복 행사와 같은 화합을 다지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 마을사업이 또 다른 노동이 아닌 스스로 참여하여 소속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건강한 활력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체험객을 맞는 중왕마을 사무실 모습〉

최근에는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대상마을’로 선정되는 경사가 났었다. 이 마을의 효자상품인 감태로 6차 산업에 도전한 것인데, 무려 1년 이상 준비한 끝에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 박 위원장은 “기쁘기도 하지만 더욱 열심히 일 해야 할 명분이 생겼다”며 “지금은 비록 가공 조미 감태만을 생산하지만 앞으로는 가공식품, 학교급식 납품과 해외시장 진출까지도 노려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위원장의 꿈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바다에 그물을 설치해두고 물이 빠지면서 나가지 못한 물고기를 맨



손으로 잡는 ‘개막이 체험’을 시작하고 싶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 3회째를 맞고 있는 ‘빨낙지 먹물 축제’도 보령머드축제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축제로 키워보겠다고. 그러면서 우리 농어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젊음의 거리’를 만들고 싶다는 거다. 귀농·귀촌과 연결시켜 보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숨어 있지 않나 싶기도 하다.

이미 박 위원장이 부러워하는 마을은 있었다. 바로 태안군에 있는 ‘대야도 마을’이다. 중왕마을보다 먼저 어촌 6차 산업화 마을로 선정되어 올해 사업시설까지 준공·완료한 상태다. 대야도 마을은 육지와 바다가 어우러진 마을로 갯벌체험뿐 아니라 독살체험, 그리고 썰물이 되면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뒷섬과 배 타고 5분 정도 걸리는 다른 3개의 섬까지 총 4개의 무인도를 체험할 수 있는 어촌체험의 명소라는 것이다. 필자도 연재한 마을이어서 잘 알고 있다고 했더니 ‘역시 먼저 다녀가셨군요’라고 하며 웃으셨다.

필자는 중왕마을에서 희망을 보았다. 앞서 말했듯이 마을 주민들이 모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마을이 발전하길 바라고 있다. 그 바람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마을 주민들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너무나 혼잡해지는 건 원치 않았다. 마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여야 체험객에게 신경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을을 방문해준 체험객들과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조금이라도 더욱 많은 바지락을 캐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소하지만 정이 느껴지는 공감의 기술이 가장 으뜸인 것이다.



사계절 언제든지 이 마을을 방문해도 좋을 것이다.

이미 여러분을 맞을 기분좋은 하루를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

